

# 지자체 공사 지역업체 외면

## 업체 입찰 자격 제한 반발

지자체가 신규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최근 예정금액 388억2,100만원 규모의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다음 주 중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단일 준공된 공사로 상수도 송·배수관 관경 150mm 이상으로 32.38km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실적제한으로 도내에서 원도급자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에서도 만점을 받은 업체는 단 4곳인

화천지역 300억대 정수장 공사

기준 맞는 업체 도내 한 곳도 없어

화천군 "건설 시공업체 선정 중점"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극소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공동 수급업체로 구성할 수 있는 지역업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공사 난이도에 비해 실적제한이 과도하며 입찰업체가 적으면 담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지역 중소기업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특별한 공법이 필요 없는 단순공사에

불과해 실적이 적은 업체도 충분히 공사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해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한건설협회 도회에서도 최근 실적제한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기 위해 화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로 실적제한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정했다"면서 "실적제한이나 입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 업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시공을 위한 업체 선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복선전철 차량기지 공사 절대공사기간 부족 우려

두차례 유찰 뒤늦게 착공  
일부 부실공사 우려 제기  
철도공 공기 확보에 사활

【강릉】2018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릉시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1,962억원을 들여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일원 29만9,219㎡에 고속열차 12편과 일반열차 8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강릉차량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8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의 턴키로 발주했으나 두 차례 유찰되는 등 재공고 끝에 지난 1월 말 코오롱글로벌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착공했다.

유찰 당시 건설사들은 공사비

가 부족한 데다 공사기간도 짧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구간 아치형 교각 붕괴 사고처럼 절대공기가 부족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단 측은 용지매수 기간 부족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에 시와 사전협의해 지적분할 측량과 지장물 조사를 마치고 2015년 12월부터 보상비를 지급 중이며 성토용 토취장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공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강릉 차량기지는 열차 운행 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민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2017년 말 복선전철사업과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본/사/인/사

- ◇국장급 승진
  - △남궁창성 서울본부장 직무대리
  - △고흥범 총무국 제작부 국장대우
  - △천남수 강원사회조사연구소장(국장)
  
  - ◇부국장급 전보
  - △진교원 독자국 부국장
  - △이수영 문화부장
  - △허남우 편집부장
  - △이재용 뉴미디어·TV국 방송·미디어부장
  - △정석길 총무국 제작부장
  - ◇부국장급 승진
  - △서영 뉴미디어·TV국 사진영상부장
  - △홍성배 동해주재
  - △안의호 철원주재
  - △방기준 정선주재
  - △박홍순 광고국 광고마케팅부
  - ◇부장급 전보
  - △문성주 전략기획국 전략사업부
  - △박진수 전략기획국 문화사업부
  - △박현철 삼척본부 취재팀장
  - △전제훈 영월주재
  - ◇부장급 승진
  - △주은경 총무부
  - △이은주 서울본부 마케팅국
  - △안은복 경제팀
  - △이상현 편집팀
  
  - ◇차장급 전보
  - △이동명 인제주재
  - △이화순 총무국 경리부
  - ◇차장급 승진
  - △안영옥 문화팀
  - △진민수 서울본부 취재국
  - △최동욱 총무국 총무부 운송팀
  - ◇기자·사원급 전보
  - △조병수 편집팀
  - △이서영 영동본사 취재국
  - △민경태 전략기획국 문화사업부
- <3월7일자>

오늘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강원도내 7개 세무서가 3일 각 세무서 별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상식을 진행한다. 또 세무서별로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하고 세정현장에 대한

체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의 역할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 다음은 유공자 명단이다.
- ◆윤천세무서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이인순 젠펜테크 대표◇국세청장 표창=△김광일 청송임업 대표△남은희 세무회계사부소 세무사
    -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함지현 구구플란트 치과의원△박수현 대추나무한의원 원장△이주성 영종씨에스 대표◇춘천세무서장 표창=△신미영 톨타워객잔 대표
    - △이성재 지씨에스플러스 재경팀장
  - ◆원주세무서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정상철 강원전업사 대표△최충환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대표◇국세청장 표창=△김영국 동성정밀엘엑스 대표△김부선 삼원포장 대표△김종태 아모르컨벤션웨딩 대표◇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현재현 연세안과 원장△이경복 원주시장약국 대표△이홍명 세무회계사부소 대표◇원주세무서장 표창=△장지영 참문의과 원장△윤애경 태광글로벌 대표△김진준 평창한우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서상일 한국의식업중앙회 횡성군지부 사무국장
  - ◆강릉세무서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최종수 유선통신 대표◇국세청장 표창=△안경미 낙원기업 대표◇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조주원 정원치과 원장◇강릉세무서장 표창=△홍지훈 밥통사무소 대표△김육화 일양중

- 기 대표△이상길 강릉심해부대 대표
  - ◆속초세무서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황병렬 속초하안나라피부와 대표◇국세청장 표창=△최용석 보배BSC 대표◇속초세무서장 표창=△강석원 강원개발투자식회사 대표△허준현 연세안과 원장
  - ◆삼척세무서
    - ◇국세청장 표창=△안상복 그레이스산부인과 대표◇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홍제진 만복주식회사 대표◇삼척세무서장 표창=△심희복 대원산업 대표△최연희 씨스포빈 대표△남학준 구름 대표◇세정협조자 표창=△김은경 백호철강 대표
  - ◆홍천세무서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신재봉 용성바이오 대표◇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이상미 샌드블록 대표△최재봉 다나치과 원장◇홍천세무서장 표창=△김용남 인제산업 대표△윤호섭 한림의원 원장◇세정협조자 표창=△전명준 홍천군병영회장△이상용 대명레저산업 상무
  - ◆영월세무서
    - ◇국세청장 표창=△신현복 대양씨에스피 대표◇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김종석 연세외과의원 원장△위재민 세무법인다솔 세무사◇영월세무서장 표창=△김명수 새한터건축사무소 대표
- 박성준 kwwn@kado.net

# 화천군 388억원 공사 실적제한 논란

간동정수장 증설 공사 32km 준공실적 포함  
도업체 전무·지역업체 참가 기회 박탈 지적  
군 "공사 규모가 커 시공능력·경험 등 고려"

화천군이 388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리한 실적제한을 요구, 지역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화천군 환경수도사업소가 최근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입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으며

공사 규모는 지역내에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화천군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상수도 송·배수관 관경 D150mm 이상, 32.38km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도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지지 않게 됐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화천군의 공사 실적제한에 대해 △공사 난이도에 비

해 과도한 실적제한 △다수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 박탈 △동일공종의 경우 실적제한 없이 적격심사로 다수 발주 △평가 점수 만점 공동수급체가 소수로 담합 우려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도 건설협회는 화천군의 이번 공사 실적제한으로 평가 준수가 만점인 업체는 '도내에는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4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담합의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내 업체들은 화천군이 공사 발주를 취소하고 실적제한을 제외한 후

재공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만큼 전국 입찰이 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도내 업체들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오히려 분할발주를 통해 도내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해 실적제한을 둔 것 뿐"이라며 "도내 업체와 49% 이상의 공동도급을 하도록 해 지역 업체도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안은복 rio@kado.net

## 아하! 그렇구나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②

대법원은 2012. 5. 1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도 단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였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를 적용하는 공동수급체의 공사에서는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

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 하더라도 각 구성원은 각자 발주자를 상대로 자기 지분 상당의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게 되었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